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명사 인식 양상 분석

김동인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어교육과 석사과정(제1저자)

김혜연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어교육과 조교수(교신저자)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논의 및 결론

I. 서론

‘명사’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인식된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므로, 학습자가 대상과 관계를 맺고 세상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의 틀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명사 인식은 “‘사물에 대한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인간 인지 발달에 중요한 범주화의 과정이 반영된 문법 요소”(고춘화, 2012: 202)에 대한 인식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명사 인식과 학습자의 사고가 서로 맞물려 있다면, 학습자의 명사 인식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명사 교육은 곧 문법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 발달을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이 된다.

그러나 명사 교육을 학습자의 사고와 관련 지어 논의한 선행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으로 명사 교육에서 학습자 인식의 발달상을 탐색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그간 명사 교육 논의에서는 명사 개념의 특성에 기인한 이론적인 제안이 주를 이루었으나, “교육의 논리는 지식의 존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에서 출발하는 것”(주세형, 2006: 73)인 바 학습자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명사

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기의 학습자가 현재의 명사 개념 이해에서 어떠한 지점을 어려워하며, 이들 학습자가 명사를 인식하는 과정에 어떠한 인지적 정보가 관여하는지를 확인하는 실증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학습자가 지난 명사 인식의 상을 파악하고, 이것이 차후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의 발달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은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Vygotsky, 1986/2011)을 규명하는 교육적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적인 성격의 기초 연구로서, 특정 시점의 학습자가 드러내는 명사 인식의 상을 탐색함으로써 명사 교육의 발달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단어 인식과 관련된 변화가 보고되었으며(Nippold, 2016) 현행 교육과정에서 품사 단원을 명시적으로 학습하는 시기인 중학교 1학년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기존 명사 교육 논의에서는 이 시기의 일반적인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특정한 속성의 명사를 교육내용으로 마련해야 함이 제안되었는데(고춘화, 2009), 이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명사의 속성에 따라 달라지는 학습자의 인식 경향을 확인하는 연구문제를 별도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구안된 명사 판별 과제에 대한 수행으로부터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명사 인식의 수준과 경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간 학습자의 명사 인식 관련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실증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명사 인식 관련 연구는 추후 품사 교육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문법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 연구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자의 명사 인식 양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학습자의 명사 판별의 경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명시를 명사로 판별하는 경우’와 ‘비명사를 비명사로 판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이들 간의 경향성을 비교한다. 이어서 학습자의 명사 판별 양상이 인지적 특성

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명사의 추상성’을 변수로 고려하여, 중학생의 명사 인식에서 단어가 가진 의미적 추상성의 영향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명사 인식에서 어려움을 겪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응답에 따라 단어를 나누고 그 경향성과 속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과 비명사 판별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은 명사의 추상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셋째,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이 명사로 판별하기 어려워하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며, 이러한 단어들이 갖는 공통된 속성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문법교육 내 명사 교육 논의

국내의 문법교육 연구에서 ‘명사 교육’ 자체를 초점화하여 다룬 연구물은 고춘화(2009, 2012)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명사 교육을 초점화한 상기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품사 교육을 다룬 연구물 중에서 명사 교육과 관련되거나 시사점을 제공할 만한 연구들을 추가로 검토하고자 한다.

고춘화(2009)는 문법교육이 학습자의 사고와 관련되어야 함을 전제로 삼고, 그로부터 학습자의 특정한 사고 작용을 명사의 하위 요소인 고유명사, 보통명사, 추상명사, 의존명사 등과 관련 지어 각각의 교육내용을 제안하였다.

다. 고춘화(2009)에 따르면 명사 교육은 그 개념적 특성에 따라 ‘고유명사 → 보통명사 → 추상명사 → 의존명사’의 위계로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계화의 기반이 된 ‘학습자 수준’ 논의는 Piaget가 제안한 일반적 인지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구분된 것이기에, 연구물 내에서도 명사 교육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 수준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특히 Piaget의 단계 구분에서 12세 전후에 해당하는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의 인지능력을 전반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주장들이 여럿 제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Shaffer & Kipp, 2013/2014: 247-255), 고춘화(2009)에서 발달단계 구분에 기인하여 추상명사까지를 초등교육 명사 교육내용으로 설정하였다는 점 역시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쟁점을 고려할 때 명사 교육의 위계 설정 또한 청소년기의 명사 인식의 특성을 중심으로 별도의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고춘화(2009)의 후속연구로서 고춘화(2012)에서는 명사 교육에서 단순히 품사로서의 특징을 다루는 데에 그치기보다는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차원의 접근까지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명사 교육의 지평을 더욱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라 “명사의 의미 분류와 그 속성을 밝히는 작업은 모국어 화자의 머릿속 개념 체계를 확인하는 과정”(고춘화, 2012: 230)임에 주목, 명사를 규명하는 의미 속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내용이 마련될 수 있음을 제언하고 그 가능태를 확인하였다.

비록 명사 교육만을 논의한 연구는 아니지만 품사교육 관련 연구물, 특히 품사교육의 위계화 관련 연구들은 명사 교육의 틀을 설정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시도가 품사 교육을 중심으로 문법교육의 위계화 방향을 제안한 이관희(2008, 2009)의 일련의 연구들이다. 이관희(2008, 2009)는 교육과정의 위계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지식 분석법’을 제안하는 등, 논의 전반에서 학습자의 능력을 중점에 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관희(2008)에 따르면 중학교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은 ‘체계적이고 명제적인 인식’의 단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품사 교육

과 관련하여 품사 체계를 ‘명제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으로 삼게 된다. 이는 추후 비판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에 기반을 두는 고등학교 품사 교육의 토대로 작용하게 된다. 곧, 중학교 시기 품사 교육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품사 체계에 대한 ‘명시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제민경(2015)에서는 장르 중심 문법교육의 교육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기존 명사 교육에서 중심이 되어온 명시적 개념으로서의 ‘명사’를 ‘결과적 언어’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비되는 ‘과정적 언어’로서의 ‘명사화(nominalization)’ 기제에 보다 주목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명사가 아닌 요소를 명사와 같이 ‘대상화’하여 표현하는 기제인 명사화는 명사 인식에 기반한 언어적 전략으로서 주목된다. 이에 제민경(2015)에서는 문법 교육에서 표현 의도에 보다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명사로 대표되는 결과적 언어보다는 명사화 전략을 비롯한 과정적 언어가 중핵적인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문법교육에서의 위계화와 관련된 논의를 검토하여 ‘종적 연계성’ 개념을 정립한 최선희(2020)에서는 제민경(2015)에서 제안한 장르 중심 문법교육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습자 수준이 요구됨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상위 학교급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그러한 지적을 수용함으로써 명사 교육의 국면에서 종적 연계성을 구축하는 틀이 마련될 수 있다. 즉, 이 관희(2008)에서 제안된 바에 따라 중학교 수준에서는 ‘명시적 개념으로서의 명사’를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된 후, 이것이 상위 학교급의 교수학습을 통해 장르성을 고려한 ‘명사화 전략’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확장됨으로써 명사 교육에서의 ‘종적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품사 교육의 일부로서 다루어져온 만큼 명사 교육 자체를 초점화한 접근은 이제껏 많이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명사 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한 고춘화(2012)에서 역설하듯 명사는 언어 단위의 하나인 동시에 세계를 인식하는 한 방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명사 교육은 학습자의 명사

와 관련한 사고나 인식을 토대로 하여 교육내용을 정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에 따른 발상에 기반하여 그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의의를 띤다. 아울러 품사 교육의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명사 교육에의 시사점이 직간접적으로 제안된 바 있으며, 본 연구는 이들을 검토하여 연구 참여자인 중학교 학습자에 적합한 명사 교육의 목표로서 ‘명사 개념의 명시적 이해’를 기준점으로 설정한 후 연구를 구성하였다.

2. 학습자의 명사 인식과 문법 오개념

본 연구가 문법 영역의 교육내용인 명사 개념에 대한 현재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고, 그러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의 측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어과 및 문법 오개념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 역시 이론적 배경으로 기능한다. 오개념은 학습자가 어려움을 나타내거나 통상적인 기준과 다른 수행을 보인 지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교과나 영역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수행으로부터 확인되는 ‘오개념’에 주목하는 것은 김호정·김은성·남가영·박재현(2009)에서 논의되었듯 학습자로부터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국어과 오개념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한 김호정 외(2009)에서는 국어과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어교육에서의 오개념이 단순한 ‘틀림’만은 아니며, 국어와 관련한 학습자의 현상태를 보여주는 지점이자 발달을 위한 ‘인지적 교두보’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그러한 점에서 국어과에서는 오개념이 형성된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교수학습을 위한 아이디어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진수(2017)는 특히 ‘문법 오개념’을 초점화하여 그 성격을 탐색하였다. 이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문법 개념은 구성된 ‘합의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므로, 문법 개념의 인식은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선택하는 ‘인식론적 정당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인식 주체인 학습자의 판단에서

나타나는 문법 오개념 역시 학습자 나름의 정당화를 거친 결과임에 따라 더욱이 단순한 ‘맞고 틀림’의 문제만으로 치부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특정 문법 개념이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비롯하여, 개념 간 관계 등에 대한 판단 당시의 인식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문법 오개념에 대하여 ‘왜?’에 천착하는 탐구의 과정은 특정 문법 개념에 대한 학습자의 현 인식 상태를 확인할 때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특정 개념에 대한 문법 오개념은 그 또한 학습자가 판단한 결과임에 유의하여 발생 맥락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문법 오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문법 개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 개념들과의 관계를 비롯한 정보를 현재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중학교 명사 교육에서의 학습자 문법 오개념이 어떠한 맥락에서 유발되는지를 보고한 연구물이 축적되지 않았으므로, 문법 오개념에 기반하여 교육내용을 구안하는 기초 연구로서 학습자의 현재 인식에 초점을 두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중학교 1학년 학습자가 명사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한 장치로 학습자가 드러낸 ‘문법 오개념’에 주목한다. 학습자들이 명사를 명사로, 비명사를 비명사로 인식하는 것은 ‘품사 체계의 명시적 이해’라는 품사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시적 이해를 목표로 삼는 한, 명사를 비명사로, 혹은 비명사를 명사로 인식하는 현상의 맥락은 주요 탐구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명사 인식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명사 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법 오개념의 원인도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법교육의 학습자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타당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서 방법적 거점이 된다.

3. 어휘부의 구조와 명사 인식

학습자가 지닌 명사 인식의 상을 탐구하는 일은 단어 단위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단어를 위시한 언어 표현이 머릿속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를 탐색하는 어휘부 이론과도 관련된다. 구본관(2011)에 따르면 머릿속 사전에서 주요 등재 단위가 바로 단어이며, 특히 여기에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뿐 아니라 품사 정보, 단어의 짜임 등에 대한 정보가 백과사전처럼 저장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습자가 지닌 단어와 관련된 정보가 복합적으로 명사 인식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중학교 학습자들이 단어의 품사를 판별하는 데에 이처럼 다양한 정보 중 ‘무엇이 어떻게 관여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다.

몇몇 관련 연구들로부터 그 원리에 대해 추론해 보자면, ‘단어의 짜임’에 대한 정보는 복합명사의 인식에서 명사 판별 여부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해당 명사가 학습자의 머릿속에 분석된 각각의 ‘형태소’ 또는 한 덩어리인 ‘단어’ 중 무엇으로 저장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허철구·김명광·조지연·한명주·정한데로(2014)에서는 Lieberman(1981), Selkirk(1982) 등 형태소를 단위로 머릿속에 저장된다고 본 견해와 Aronoff(1976) 등과 같이 단어가 통째로 저장된다고 본 견해를 구분하여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쟁점은 본 연구에서 복합명사에 대한 판단 양상에 따라 단어의 짜임, 곧 그로부터 분석된 형태소 구성 정보가 학습자의 판단 과정에 관여하는가의 여부를 해석하는 일과 맞물린다. 명사 ‘먹이’가 ‘먹-’과 ‘-이’로 분석되는 것처럼 명사는 반드시 명사 형태소만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며, 용언 어간 등 다양한 형태소로 구성되는 복합명사 또한 엄연히 명사의 일종이다. 이에 동사 어간이 포함된 복합명사 ‘먹이’에 대해 만일 학습자들이 명사가 아닌 것으로 판별하는 문법 오개념을 드러내었다면, 이를 학습자의 머릿속에 해당 단어가 한 덩어리로 저장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이루는 형태소 ‘먹-’에 대한 분석 정보가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해당 단어가 사용되는 ‘빈도’ 또한 단어 인식에서의 변수로 고려 될 수 있다. 심리언어학적 접근에서는 단어 인식과 관련하여 ‘단어 빈도 효과(word frequency effect)’를 고려하는데, 이는 더욱 자주 접한 단어일수록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처리됨을 의미한다(신승용, 2018: 141; Aitchison, 2012/2015: 362-363; Field, 2003/2020: 33). 이처럼 빈도가 단어 인식에 관여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나, 그러한 빈도의 영향력이 단어 인식에 ‘얼마나’ 관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견해를 보인다. 가령 송원용(2019)에서는 용언 활용형의 심리적 실재성을 논의하면서 빈도를 “반응 시간에 다소간 영향을 주는 부분적 변수”로 한정하여 설명하였다. 반면 ‘이중 저장 가설’은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강한 색깔을” 지녔으며, 이들끼리 인출이 용이한 별도 공간에 따로 저장된다는 것을 가정한다(Aitchison, 2012/2015: 363-364; Glanzer & Ehrenreich, 1979). 정한데로(2010)에서는 “출현 빈도가 높은 파생어는 그 자체로 어휘부에 등재되고, 언어 수행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함으로써 국어에서 복합명사에 대한 명사 인식에 빈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곧, 고빈도의 복합명사가 별도의 공간에 저장되어 있거나 그 자체로 한 덩어리로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처럼 빈도에 의해 한 덩어리의 단어로 간주되어 단어의 짜임 정보가 명사 판별 과정에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자면, 단어가 머릿속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를 탐구해온 어휘부 이론은 단어 충인 명사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관련 논의 및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어를 인식하는 과정에 다양한 정보가 개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논의로부터 단어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정보 요소를 크게 ‘단어의 짜임’과 ‘빈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 요소는 추후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인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의 명사 인식의 상을 살펴봄으로써 명사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에 서울 소재 중학교의 1학년 재학생 112명(남학생: 49명, 여학생: 63명) 중 연구 참여와 자료 제공에 동의한 11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최종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통상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명사와 그 유관 개념으로서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학습한 후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자 중 1인은 일부 학급의 교수학습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모든 학급의 교수학습 전 과정에서 연구에 활용된 어떤 단어도 예시로 활용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자료수집 단계 초기부터 일괄 제거되었으며, 개인 간 식별을 위한 일련번호(L-1~110)가 부여되었다.

2.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본격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전, 연구 참여 및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품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교수를 모든 학습자에게 제공하였다. 해당 단원의 학습을 마무리한 직후에 연구 참여자들은 일련의 선정 절차를 거쳐 마련된 목록의 단어에 대하여 ‘명사 판별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는 총 27개의 단어에 대해 ‘명사’ 또는 ‘비명사’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판별하는 과제를 의미하며, 단어 판별 외 요인으로 인한 중학교 1학년 참여자의 작업기억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설계되었다. 예컨대 ‘진돗개’라는 단어를 명사로 생각하는 학습자는 ‘명사’ 항목에 체크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그러한 작업은 연구 참여자별로 전체 단어에 대한 판별을 마무리할 때까지 반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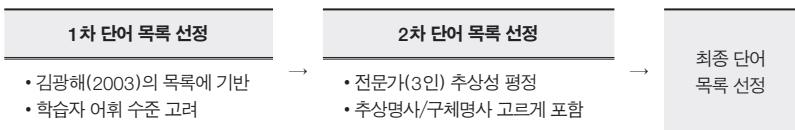
진동개	<input type="radio"/> 명사	<input type="radio"/> 비명사
-----	--------------------------	---------------------------

〈그림 1〉 명사 판별 과제의 예

이처럼 연구 참여자 전원이 여러 개의 단어들에 대한 판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설계상 반복 측정 설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체 단어의 제시 순서는 단어의 명사 여부 등 고려된 변수에 대하여 역균형화를 충족하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때 제시될 단어 목록을 보다 타당하게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크게 두 차원에서 수행하였다. 먼저 어휘교육 분야의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명사를 일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단어의 추상성에 따라 명사 인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상명사와 구체명사가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단어의 추상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어교육 전문가 3인의 평정 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추상명사 9개, 구체명사 9개, 비명사 9개 등 총 27개의 단어 목록을 확정하였다.

〈표 1〉 단어 목록 선정 과정



1) 1차 단어 목록 선정

본 연구에 활용된 단어 목록은 일차적으로 김광해(2003)의 연구 결과로 제시된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목록의 단어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어휘 교육은 빌달 단계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 과정은 연구 참여자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전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어휘교육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김광해(2003)의 4등급 목록을 ‘중학

교 수준'으로 간주하여 논의한 점을 수용하고(전은주, 2012), 연구 참여자들이 아직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3등급'에 속하는 단어를 대상으로 삼아 목록을 추출하였다.

이에 일차 목록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들 3등급 목록 단어 전체(총 8,358개)를 제시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후 난수를 생성, 무선적 으로 단어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추출된 단어가 표준국어대사전 를 기준으로 명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였으며, 100개의 명사 목록 이 모두 추출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 실행하였다.

2) 전문가 평정 및 최종 단어 목록 선정

상술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일차 목록 단어 100개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평정의 과정을 통한 2차 선정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앞서 고춘화(2009)가 토대로 삼은 Piaget 인지발달단계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속한 중학교 1학년 은 추상적 사고가 발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형식적 조작기로의 전환 이 급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 Piaget(1970)의 논의를 고려한다면, 해당 단 계의 초기에 해당하는 이들 학습자의 명사 인식에서 의미의 추상성이 변수 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에 평정을 위한 단어 목록을 마련할 때 가능한 한 추상명사와 구체명사를 균등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추상명사 및 구체명사의 여부는 앞서의 명사 여부와 달리 표준국어대사 전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판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과정을 통해 기 준점을 타당하게 마련함으로써 구체명사와 추상명사를 균질하게 포함하여 단어 목록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어교육 전공 대학원생 및 현직 국어 교사로 구성된 3인의 전문가 평정팀을 구성하고, 이들의 추상성 평정 결과를 종합하는 한편 별도의 관련 연구에서 제안한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단 어 목록을 확정하였다.

비명사의 경우 애초에 명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처럼 명사의 하위 범

주인 추상명사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에서 모든 단어의 품사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전문가 평정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명사 판별 과제에서 함께 제시되는 비명사 단어 목록은 연구자가 명사 단어 목록에 준하여 품사와 학습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마련하였다. 이때 비명사 목록에는 명사로 판별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체언, 독립언 또는 수식언 등을 두루 포함하되, 중학생 학습자들이 명사와 가장 혼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명사화된 용언도 전성어미의 형태가 적절히 포함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최종 단어 목록은 다음 <표 2>와 같다. 어휘교육의 성과를 반영한 목록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수준을 고려할 때 판별 과제에서 ‘모르는 단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으며, 전문가 평정 과정을 거침으로써 ‘추상명사’와 ‘구체명사’의 성질을 균질하게 포함하는 목록을 완성하였다.

<표 2> 최종 단어 목록(총 27개, 가나다순)

구체명사	추상명사	비명사
녹색	요괴	그
몸무게	사실	놀기
염산	소문	많이
원순잡이	올림	반짝
이메일	진공	생각함
진돗개	질투	어머
칼슘	축하	일하기
콘서트	tips	짧음
콩팥	흐름	첫

3) 학습자의 명사(비명사) 판별 수준 및 개별 단어의 명사 판별도 측정

최종 단어 목록으로 구성된 명사 판별 과제에서 연구 참여자의 응답은 모두 ‘명사’와 ‘비명사’로 양분되므로, ‘명사’로의 응답을 1, 비명사로의 응답을 0으로 코딩하였다. 그런데 응답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연구문

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 참여자’에 주목하는 경우(연구문제 1, 2)와 ‘단어’에 주목하는 경우(연구문제 3)가 서로 논리적으로 구분되므로, 이들 초점에 따른 경향성의 변수를 구분하여 각각 ‘판별 수준’과 ‘판별도’로 명명하였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명사(비명사) 판별 수준’은 명사 판별 과제에서 연구 참여자를 기준으로 ‘명사를 명사로(또는 비명사를 비명사로) 응답한’ 참여자별 응답의 경향성을 의미하며, ‘단어의 명사 판별도’는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해당 단어가 ‘얼마나 명사로 판별되었는가’에 대한 경향성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과 ‘학습자의 비명사 판별 수준’은 참여자별로 ‘명사’와 ‘비명사’ 각각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 품사 정보를 기준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했는가의 비율로 계산되었다. 예컨대 모든 명사를 명사로 잘 응답한 학습자는 명사 판별 수준이 1(100%)로 표현되며, 이와 달리 모든 명사를 비명사로 응답하였을 경우에는 명사 판별 수준이 0이 된다. 이때 명사 판별 수준은 전체 명사 중 (1) 비명사와 동수로, (2) 과제의 제시 순서에서 비명사와의 역균형화 배열을 이루면서, (3) 추상명사와 구체명사의 속성이 최대한 균질하게 포함되도록 하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9개 명사(녹색, 몸무게, 사실, 염산, 올림, 진돗개, 콩팥, 탑승, 흐름)에 대한 응답으로 산출되었다.

‘단어의 명사 판별도’¹⁾는 제시된 단어 각각에 대하여 단어별로 ‘명사로 판별된 응답의 비율’로 산출되었다. 만일 ‘진돗개’라는 단어의 명사 판별도가 1로 나타났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모든 참여자의 응답에서 전부 명사로 판별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모든 참여자가 ‘진돗개’를 비명사로 판별했을 경

1) 물론 ‘학습자의 명사/비명사 판별 수준’에서와 같이 ‘해당 단어가 얼마나 비명사로 판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의 비명사 판별도’ 또한 별도의 변수로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단어에 대한 동일 응답을 기준으로 할 때 ‘얼마나 비명사로 판별되었는지’는 ‘얼마나 명사로 판별되었는지’와 논리적으로 양분되며, 그 수치 또한 $(1 - \text{해당 단어의 명사 판별도})$ 로 명사 판별도에 준하여 확인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명사 판별도를 따로 변수로 삼는 대신, 이러한 정보를 명사 판별도로 일원화하여 ‘더/덜 명사로 판별된’ 단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에는 ‘진돗개’의 명사 판별도가 0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7개 단어 모두에 대해 개별 단어가 명사로 판별된 정도가 산출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모든 분석은 R 버전 4.1.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문제 1, 2의 경우 반복 측정에 의해 수집되었음을 고려하고, 샘플 사이즈가 충분하되 모든 변수가 정규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 대응표본 평균검정을 위한 비모수 검정에 해당하는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활용하여 경향성의 차이와 그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3의 경우, 기술통계치를 기반으로 단어별 경향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출된 단어들의 성격은 기존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적인 판단을 통해 분석되었다.

IV. 연구 결과

1.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 및 비명사 판별 수준

1) 기술통계

먼저 연구 참여자($n=110$)의 응답으로부터 산출된 변수인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과 비명사 판별 수준의 기술통계치는 아래 <표 3>과 같다. 이들 변수는 각각 명사 또는 비명사 단어의 명사 판별에서 ‘얼마나 정확한 인식을 보였는가’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 경향을 나타내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학습자가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어 명사 판별 수준에 ‘명사의 추상성’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구체명사와 추상명사 각각에

대한 명사 판별 수준을 별도로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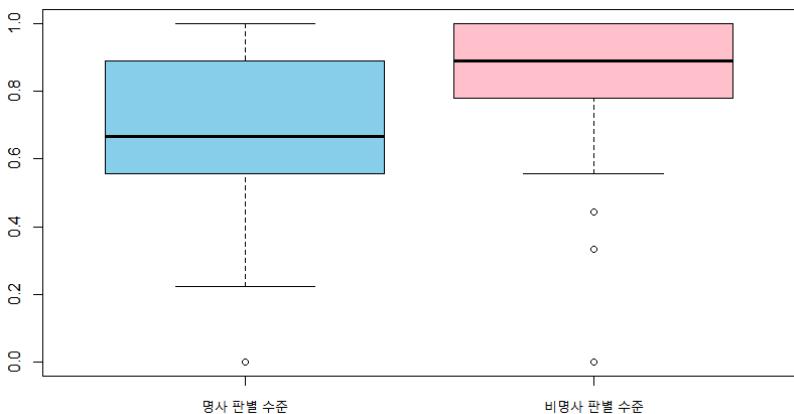
〈표 3〉 학습자의 명사/비명사 판별 수준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치	최소치	왜도	첨도
명사 판별 수준	0.67	0.19	1.00	0.00	-0.56	3.47
구체명사 판별 수준	0.88	0.20	1.00	0.00	-2.12	7.71
추상명사 판별 수준	0.56	0.26	1.00	0.00	-0.13	2.05
비명사 판별 수준	0.83	0.20	1.00	0.00	-1.87	7.31

본 연구의 참여자 110명에 대한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은 평균 0.67($SD=0.19$)로 나타났으며, 비명사 판별 수준의 경우 평균 0.83($SD=0.20$)으로 확인되었다. 구체명사의 판별 수준은 평균 0.88($SD=0.20$), 추상명사의 판별 수준은 평균 0.56($SD=0.26$)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정규성 여부와 관련되는 왜도와 첨도의 경향성을 살펴볼 때 네 변수는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의 수행 결과 네 변수 모두 비정규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변수 간 비교가 이루어지는 분석은 비모수 검정의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2) 명사 판별 수준과 비명사 판별 수준 간 비교

먼저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과 비명사 판별 수준이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두 변수 간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 차이를 박스플롯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는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왼쪽)과 비명사 판별 수준(오른쪽)의 양상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앞서 기술통계로 제시된 바와 같이 명사 판별 수준은 0.67($SD=0.19$), 비명사 판별 수준은 0.83($SD=0.20$)을 평균으로 상자그림과 같이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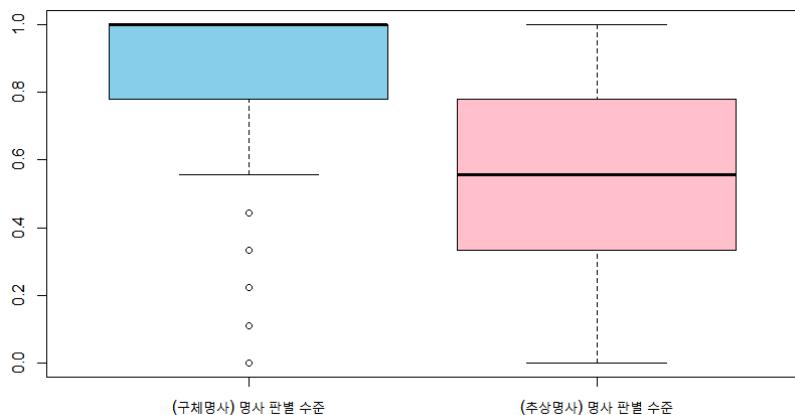
〈그림 2〉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과 비명사 판별 수준

이들 간 비교를 위해 활용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두 변수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비모수 통계검정 방법으로, 산출된 결과를 통해 두 변수의 양상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과 비명사 판별 수준에 대하여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도 $p<0.001$ ($W=891$)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검정 결과 ‘명사 판별 수준’과 ‘비명사 판별 수준’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명사를 명사로 판별하는 학습자의 수준이 비명사를 비명사로 판별하는 수준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그림 2〉의 양상과 함께 고려한다면, 연구 참여자들은 명사를 명사로 판별하는 과제에 비해 비명사를 비명사로 판별하는 과제에서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3) 추상명사 여부에 따른 명사 판별 수준 간 비교

앞선 분석 결과에서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과 비명사 판별 수준이 상이한 양상을 보인 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하여, ‘명사의 추상성’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구체명사에 속하는 단어와 추상명사에 속하는 단어에 대한

명사 판별 수준을 별도로 산출하였다. 연구 참여자 전체($n=110$)에 대한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 내에서, 특히 ‘구체명사’의 속성을 지닌 9개 단어와 ‘추상명사’의 속성을 지닌 9개 단어 각각을 ‘얼마나 정확하게 명사로 판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추상명사 여부에 따른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

〈그림 3〉에 표현된 것처럼 구체명사 9개 단어에 대한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왼쪽)은 평균 $0.88(SD=0.20)$ 로 확인되었으며, 추상명사 9개 단어에 대한 명사 판별 수준(오른쪽)은 평균 $0.56(SD=0.26)$ 으로 나타났다. 각각 ‘구체명사에 대해 명사를 명사로 판별하는 수준’과 ‘추상명사에 대해 명사를 명사로 판별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이러한 두 변수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이들 간에 월록슨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도 $p<0.001(W=4918)$ 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또한 상당히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곧 학습자의 명사 판별 수준에서 구체명사와 추상명사 각각에 대한 명사 판별 수준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의 양상을 종합하여 본 결과를 해석한다면,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해당 명사가 추상명사에 속할

때 구체명사에 속한 명사일 경우에 비해 매우 유의하게 낮은 명사 판별 수준을 보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단어의 명사 판별도

1) 기술통계

명사 인식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단어’를 어려워하는지, 또한 그러한 단어가 지닌 특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연구문제 3의 규명을 위해서는 단어를 기준으로 별도의 응답 경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명사 판별 과제에 활용된 단어를 기준으로 산출된 변수인 ‘단어의 명사 판별도’, 즉 개별 단어가 학습자들에 의해 명사로 판별된 정도는 각각의 단어가 연구 참여자 110명의 명사 판별 과제 내에서 ‘얼마나 더 명사로 판별되었는가’에 대한 지표를 나타낸다. 또한 단어의 명사 판별도는 양적 연구 결과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해석을 이끌어내고자 산출된 만큼, 선행연구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함께 가급적 그 결과를 질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전체 단어 27개에 대한 명사 판별도는 평균 $0.54 (SD=0.32)$ 를 기록했으며, 최솟값은 0.03, 최댓값은 0.95로 나타났다. 해당 변수에 대한 왜도와 첨도는 각각 -0.12, 1.54로 보고되었다.

2) 명사 판별도에 따른 단어 구분

각 단어의 명사 판별도는 최종 단어 목록에 포함된 전체 단어 27개를 기준으로 하여, 각 단어별로 해당 단어가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명사로 판별되었는가’를 나타낸다. 예컨대 앞서 예시와 같이 ‘진돗개’라는 단어가 모든 응답에서 명사로 판별되었다면 명사 판별도는 1, 반대로 모두 비명사로 판별되었다면 0의 값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해당 수치가 높게 나타난 단어일수록 판별 과제에서 ‘더 명사로 판별된 단어’로 해석된다. <표 4>에서는 단어별로 명사 판별도의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명사로 판별한 정도가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0.5를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높게 명사로 판별된 단어들을 왼쪽에, 그 이하로 판별된 단어들을 오른쪽에 제시하였다. 또한, 각 범주별로 구체명사와 추상명사 및 비명사를 구별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추이가 더욱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명사 판별도 0.5 기준 단어 구분

명사 판별도 > 0.5 (13개)		명사 판별도 ≤ 0.5 (14개)	
구체명사(9개)	추상명사(4개)	추상명사(5개)	비명사(9개)
녹색 몸무게 엄산 원손잡이 이메일 진돗개 칼슘 콘서트 콩팥	요괴 사실 소문 진공	올림 질투 축하 팁승 흐름	그 놀기 많이 반짝 생각함 어머 일하기 짧음 첫

전체 단어 27개 중에서 기준보다 높은 명사 판별도를 가진 단어는 총 13개로 나타났으며, 14개의 단어들은 명사 판별도가 그 기준을 넘지 않았다. 이때 모든 구체명사 단어는 명사로 판별된 정도가 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비명사 단어는 명사 판별도가 0.5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상명사 단어의 경우 ‘요괴, 사실, 소문, 진공’ 등 4개 단어는 명사 판별도가 기준이 되는 0.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올림, 질투, 축하, 팁승, 흐름’ 등의 5개 단어는 0.5 이하의 명사 판별도를 기록하였다. 이들 5개 단어는 명사에 해당함에도 명사 판별 과제에서 학습자들에게 ‘덜 명사로 판별된’ 단어라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판별에 어려움을 느낀 단어’로서 추후 논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

V. 논의 및 결론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명사 판별 과제를 수행한 후, 응답 경향을 바탕으로 중학생 학습자의 명사 인식 양상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중학교 명사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각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 따라 우선 학습자의 명사 인식 수준과 비명사 인식 수준을 통해 중학생 학습자들이 ‘명사를 명사로’, ‘비명사를 비명사로’ 판별하는 인식 수준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명사를 명사로 판별하는 수준이 비명사를 비명사로 판별하는 수준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습자의 비명사 판별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비명사 단어의 품사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명사화된 용언’까지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은 이들 단어를 비명사로 무리 없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명사뿐 아니라 ‘관형사’나 ‘부사’, ‘감탄사’ 등의 특성을 이미 학습한 학습자들에게 이들이 명사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명사화된 용언’의 경우 문장에서 마치 명사처럼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명사가 아님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때 명사 판별 수준이 비명사 판별 수준보다 낮게 나타난 점에 대한 논의는 두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와 함께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명사 판별 수준이 명사의 추상성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명사 판별 수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 평정 결과를 기반으로 구체명사와 추상명사를 분리하여 각각의 명사

판별 수준을 확인한 결과, 양자 사이에 명사 판별 수준이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학생 학습자들은 구체명사에 비해 추상명사를 명사로 인식하는 데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인지적인 측면에서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의 추상적 사고 발달이 아직 완전하게 자리잡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은 일반적인 인지발달단계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함에도, 세분화된 요소인 명사 인식에서는 아직 발달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명사가 ‘대상’으로서의 속성을 지님을 고려할 때,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에게 ‘대상’의 원형에 가까운 사물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구체명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현저하게’ 인식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중학교 1학년의 명사 인식에서 명사가 ‘추상명사’에 속하는가 여부가 변수로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명사 교육 관련 후속 연구에서 추상명사에 더욱 초점을 맞춤으로써 학습자들의 명사 인식이 보이는 양상을 더욱 다각도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두 개의 연구문제가 학습자의 인식에 나타난 특성에 주목했다면, 마지막 연구문제는 이들이 문법 오개념을 형성한 지점이 되는 ‘단어’와 그 속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에 ‘단어의 명사 판별도’ 변수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더/덜 단어로 판별한 단어가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하였다. 학습자들은 ‘올림, 질투, 축하, 탑승, 흐름’ 등의 5개 추상명사를 명사 단어임에도 비명사로 인식하여 판별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당 단어를 비명사로 판별한 것은 학습자의 판단 과정의 결과물로서 문법 오개념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판단의 형성 맥락을 역추적함으로써 중학생의 명사 교육에서 ‘어떤 비계’를 제시할 것인가의 실마리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먼저 ‘흐름’과 ‘올림’의 경우, 이들은 단어의 짜임에 대한 학습자 내 정보가 판단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흐르-’, ‘올리-’ 등의 용

언 어간에 접사 ‘-(으)ㅁ’이 결합한 단어라는 점에서, 중학생 학습자들에게는 이들이 용언의 활용형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용언의 활용형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곧 형태소 분석 등의 정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관계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학습자의 단어 인식과 관련하여 어휘부에 이들 단어가 형태소 단위 중심으로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흐름’의 판별과 관련한 오개념은 한편 고빈도 파생명사를 한 단어로 인식할 것으로 간주한 기존 연구의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코퍼스에서 빈도 707에 해당하는 ‘올림’의 경우뿐 아니라 77, 431의 빈도로 나타난 고빈도 단어 ‘흐름’ 또한 낮은 명사 판별도를 기록한 점(최재웅·이도길, 2014)을 고려한다면, 명사 인식에서는 사용빈도의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현행 교육과정에서 독립된 교육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은 ‘형태소’ 충위가 명사 인식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형태소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면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투, 축하, 텁승’ 등의 경우, 이들은 기저형이 현저하게 노출된 복합어가 아니므로 ‘흐름, 올림’ 등과 같이 단어의 짜임과 관련하여서는 저조한 명사 판별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대신 이들 단어는 ‘독서’의 사례와 같이 의미적으로 어떠한 동작의 장면을 갖게 되며, 그러한 사태를 ‘대상’으로서 나타내는 명사 단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또한 접미사 ‘-하-’와 결합하여 사전에 별도로 등재된 파생동사가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비록 명사로서 ‘대상’을 나타내지만, 그 의미적 특성에 의해 중학생 학습자의 머릿속에는 ‘동적인 것’으로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때,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명사 인식에서는 ‘추상명사’에 주목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학습자별로 명사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도 추상명사 여부가 변인으로 관련하며, 단어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또한 구체명사나 비명사와 달리 오직 일부 추상명사에 대해서만 문법 오개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들 추상명사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용언 어간 형태소를 가진 추상명사’와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추상명사’로 그러한 오개념의 발생 맥락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중학교 1학년 학습자들이 해당 추상명사를 온전히 명사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속성을 지닌 단어들을 교수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학생 학습자의 명사 인식을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제시되는 해당 단어들이야말로 ‘비계’이며, 이를 통한 명사 인식에의 확장은 근접발달영역에 기반하여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논의에서 다루어진 제언들에 더하여 추상명사를 둘러싼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등 향후 명사 교육과 관련한 학습자 인식 양상을 더욱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의 명사 교육에서 비계로 제공될 수 있는 언어 자원의 속성을 해당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에 기반하여 탐구함으로써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점에서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로서, 편의 표집으로 구성된 11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27개 단어에 대해 수행되었음에 유의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가 해석될 필요가 있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기법을 고려한다면 샘플 사이즈 자체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추후 학습자의 수나 연령, 또는 포함되는 단어 목록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실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뒷받침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21. 8. 7. 투고되었으며, 2021. 8. 15. 심사가 시작되어 2021. 9. 1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고춘화(2009), 「사고력 함양을 위한 문법 교육 방안 연구-명사의 의미 기능과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5, 155-188.
- 고춘화(2012), 「의미 속성을 중심으로 한 명사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연구』 51, 201-234.
- 구본관(201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27-59.
-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서울: 박이정.
- 김호정·김은성·남가영·박재현(2009), 「국어과 오개념 연구 방향 탐색」, 『새국어교육』 83, 211-238.
- 송원용(2019), 「활용형의 문법적 기능과 심리적 실재성」, 『인문학연구』 31, 65-90.
- 신승용(2018), 『기저형과 어휘부』, 서울: 한국문화사.
- 이관희(2008), 「품사 교육의 위계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관희(2009), 「문법교육 위계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문법교육』 10, 205-240.
- 전은주(2012), 「중학교 어휘 교육의 위상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93, 181-213.
- 정한데로(2010), 「문법 차원의 등재에 대한 연구」, 『형태론』 12(1), 1-22.
- 제민경(2015), 「장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진수(2017), 「문법 오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52(4), 343-368.
- 주세형(2006), 『문법 교육론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 확장』, 서울: 역락.
- 최선희(2020), 「문장 구조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재웅·이도길(2014), 「물결21 코퍼스-공개 웹 자원 및 활용 도구」, 『민족문화연구』 64, 3-23.
- 허철구·김명광·조지연·한명주·정한데로(2014), 『단어와 어휘부』, 서울: 역락.
- Aitchison, J. (2015), 『언어와 마음』, 홍우평(역), 서울: 진샘미디어(원서출판 2012).
-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Field, J. (2020), 『심리언어학, 말과 마음의 학문』, 이성은(역), 서울: 학이시습(원서출판 2003).
- Glanzer, M. & Ehrenreich, S. L. (1979), "Structure and search of the internal lexico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8(4), 381-398.
- Lieber, R. (1981),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Nippold, M. A. (2016), *Later Language Development: School-age Childre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ustin, TX: Pro-Ed.
- Piaget, J. (1970), Piaget's Theory, In P. H. Mussen(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NY: Wiley.
- Selkirk, E. O. (1982), *The Syntax of Words*, Cambridge, MA: The MIT Press.
- Shaffer, D. R. & Kipp, K. (2014), 『발달심리학』, (9판), 송길연·이지연·장유경·정윤경(역), 서울: 박영스토리(원서출판 2013).
- Vygotsky, L. S. (2011), 『사고와 언어』, 윤초희(역), 과주: 교육과학사(원서출판 1986).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명사 인식 양상 분석

김동인 · 김혜연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명사 인식의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명사 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110명의 중학교 1학년 학습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선행연구와 국어교육 전문가 평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27개 단어에 대해 명사와 비명사 여부, 명사의 추상성 여부를 묻는 명사 판별 과제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명사 판별 수준은 비명사 판별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판별된 단어의 추상명사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개별 단어가 명사로 판별된 정도를 추산함으로써 어떤 단어들이 문법 오개념을 유발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이러한 단어들 또한 추상명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명사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비계를 제안하는 등, 학습자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문법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어 국어교육, 문법교육, 명사, 품사, 어휘, 언어 인식, 중학생 학습자

ABSTRACT

Analyzing First-Year Middle School Learners' Awareness of Noun

Kim Dongin · Kim Hyeyoun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noun awareness of first-year students in middle school as grammar education learners to derive implications for education about nouns. Altogether, 110 participants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engaged in a noun discrimination task with 27 words that were confirmed through prior research and an experts' evaluation process.

Results show that the learners' noun discrimination level tended to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on-noun discrimination level. Furthermore, this result was interpreted as being related to abstract nouns. By checking the noun identification of words, we also confirmed that the trigger for grammar misconceptualization is related to abstract nouns. Based on this, various topics such as scaffolding for middle school learners are discussed.

KEYWORDS Korean Education, Grammar Education, Noun, Vocabulary, Language Awareness, Middle School Learners